

<사회보장정보 브리프 제20호>

2018년 10월 16일

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운영현황

김은하 부연구위원

☎: 02-6360-4622)

1. 들어가며

-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요소 중 서비스의 비접근성(inaccessibility)은 이용자의 소득수준이나 연령, 이용자의 부담,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제약을 의미 (Gilbert & Terrell, 2002)
- 비수급 상태인 개인이나 가족에게 수급 가능성이 있는 급여 정보를 사전에 전달한다면, 정보 부재로 인하여 제도에서 누락되는 대상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음.
- 이를 통해 수급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체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.
- 이력관리 제도는 잠재적 수급자의 소득이력을 조사한 이후, 수급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급여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.
- 이하에서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이력관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소개함.

2.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

-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므로, 수급이 가능한 상태일지라도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수급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.
-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가 2016년 1월에 시행됨.
-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음.
 -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혹은 복지로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시 이력관리 희망자는 이력관리 동의 및 신청서 제출
 -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변화에 따라 이력관리에 동의한 대상자가 수급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, 사회보장정보원은 5년간 이력관리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연 1회 수행(10~12월)

- 수급권 취득이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 이력 관리를 종료
- 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가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자에게 신청을 안내(1월)

3.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

- 선정 기준액과 같은 장애인연금의 수급조건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 수급에서 누락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음.
-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자격조건이 되는 정보 부재로 수급에서 누락되는 장애인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2017년 8월에 시행됨.
-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업무가 진행되는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음.
 -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혹은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시 희망자는 이력관리에 대한 동의서와 신청서제출
 - 사회보장정보원은 이력관리에 동의·신청한 자에 대해 소득과 재산 조사를 5년 간 연 1회 실시
 - 이력관리 대상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, 이력관리는 종료됨.
 - 선정기준액에 따라 매년 1월에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자를 확정
 - 시군구는 확정된 수급 가능자에게 장애인연금의 신청방법이나 절차 등을 전화나 서면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안내

4. 나오며

-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해 잠재 이용자의 소득·재산 정보 접근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시행될 수 있었음.
- 향후에도 사회보장정보원은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, 서비스 이용에서의 제약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할 예정임.